



## 계란용기의 호치켓스(스테플러) 사용 위험개선 요망에 대한 회시 호치켓스 사용금지 협조키로

본회는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부터 계란용기에 호치켓스를 사용할 시 소비자들이 포장을 뜯는 과정에서 손가락을 다칠 위험이 있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이와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란용기의 호치켓스 사용을 자제하는데 노력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다음과 같이 회시를 함과 동시에 한국계란유통협회와 양계조합 및 산하집하장, 계란유통업체 등에 호치켓스 사용을 금지하고 똑딱 또는 열압, 재봉 등에 의해서만 포장(10개들이 등 PVC 포장시)토록 협조를 당부하였다.

- 다음 -

1. 양계농장에서는 계란판매시 30개들이 난좌에 담아 도매형태로 상인에게 판매하거나 집하장에 출하(판매)하므로 호치켓스로 포장하여 판매치 않고 있으므로 귀원에서 지적된 사항과 같은 문제가 발

생될 우려는 없으나

2. 상인 또는 집하장 등에서 양계농장에서 대량구입한 계란을 선별하여 상품화하고 소분 판매키위하여 포장하는 과정에서 호치켓스를 이용하여 계란을 포장한 것으로서 이는 귀원에서 지적한 위험성이 있음을 감지하지 못한 결과로서 본회로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사전조치를 취하지 못한데 대하여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앞으로 상인들에게 적극 홍보함로 귀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위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 그리고 계란유통협회(계란상인단체), 각 양계조합 및 산하집하장과 민간집하장 및 계란유통업체 등에 귀원에서 보내준 사본과 함께 계란용기의 호치켓스 사용을 금지하고 똑딱 또는 열압, 재봉 등에 의해서만 포장토록 요청하였으니 양지하여 주시며 감사하겠습니다.

## 일본식조협회 이지마 회장 본회 방문 상호 정보교환



일본식조협회 회장인 에이지 이지마씨가 지난 8일 본회를 방문하여 최준구 회장과 만나 서로의 정보교환을 통해 우호를 다짐하는 자리

를 마련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일본의 식조산업에 대한 설명과 국내의 닭고기 산업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하였는데 이 자리에는 미국대두협회 신인수 박사와 건국대학교 황성구 박사(통역)가 함께 참석하였다.

이날 에이지 이지마씨는 본지와외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일본의 가금육 산업에 대한 현황 및 발전방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관련기사 본문 70페이지 참조)

### 채란분과위원회 개최

난가현실화를 위한 결의문 채택



9월 채란분과위원회(위원장 구천석)가 지난 5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계란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되고 추석 이후의 난가가 큰 폭으로 하락이 예상되면서 계란유통에 혼선을 가져올 것을 우려하여 악덕 상인을 고발하여 제재조치를 하는 내용과 난가가 오를 경우 고시일자 다음날에 적용하고 난가가 내릴 경우 고시일자 전날에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결

의문을 채택, 채란인들에게 널리 홍보키로 하였다.

결의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가. 고시시세 적용일자

인상시 : 고시일자 다음날 적용

인하시 : 고시일자 전날 적용

※ 예를들어 9월 8일 인상으로 고시했을시는 9월 9일 가져가는 계란은 오르시세를 적용하고 내렸을시는 9월 7일 가져간 계란을 내린시세로 적용하면 된다.

#### 나. 고시시세 인하가격

서울경기지역은 고시시세에서 10원을 내린시세를 농장수취가격으로 한다.

#### 다. 악덕상인 고발

농장으로 부터 계란을 가져가는 상인중에 고시시세 일자 및 다운폭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농장에게 계획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상인이 있으면 협회로 명단을 통보해주시고 아울러 악덕상인을 언제든지 고발조치 등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채란양계인 여러분의 동의서를 징취해 두고자 하니 별첨양식(생략)에 의거 소속회원 전원의 연명으로 된 동의서를 받아서 다음 월례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

### 종계부화분과위원회 개최

종계부화인대회 10월 24일 덕산에서

9월 종계부화분과위원회(위원장 김교석)가 지난 10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양계업계에 영향을 주고 있는 수입문제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백세미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가 있었



으며 종계부화인들이 단합을 기할 수 있는 종계부화인 대회 개최건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닭고기 수입에 관해서는 수입자체를 막을 수는 없으나 자체 생산조절과 소비촉진을 통해 신축성 있게 대처해 나가야 하며 국내 닭고기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공업계에서는 수입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하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제품의 차별화를 기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백세미 사육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물량증가와 질병 전파의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업계에서는 질병예방과 사양관리 철저를 전제로 양성화를 시키든지 현재로서는 불법이므로 고발조치를 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하였는데 본회에서는 이미 백세미를 제도권 내로 끌어들이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당국의 대처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올해 종계부화인대회는 오는 24일 덕산에서 종계부화인들이 모인 가운데 단합대회 형식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 육계분과위원회 개최

수입물량 증가에 우려



9월 육계분과위원회(위원장 최원악)가 지난 25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추석연휴 동안 약세를 보이던 닭고기 산지가 격이 약간 상승세를 보이고 병아리 가격은 420원의 고가를 유지하는 가운데 벌어진 이날 회의에서는 수입 문제, 이중시세 문제, 신규 육계농가 증가에 따른 우려성 문제 등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다.

최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일부 계열업체는 물론 유통업체들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서 수입자유화 이후 닭고기 수입업체만 해도 40여개사로 늘었으며 시세의 등락에 관계없이 꾸준히 물량이 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육계업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영남권을 중심으로 신규육계농가들이 계속적으로 늘고 있어 물량증가를 부추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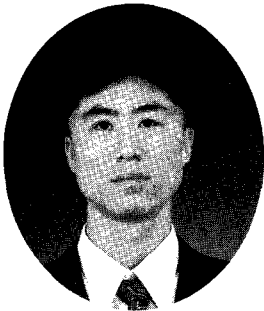
따라서 가공 식품에 원산지를 표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계속적으로 반영해가는데 노력하기

로 하였다.

육계의 이중시세 문제는 자칫 계란고시가격의 병폐를 따라갈 것을 우려하면서 농가들이 우선적으로 덤핑의 빌미를 잡히지 않는 거래를 하면서 시세의 다운 폭을 최대한 줄여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10회째를 맞이하는 전국 육계인 대회는 오는 11월초에 개최기로 잠정 결정을 하였으며 장소와 기간은 추후 결정하여 통보할 예정이다.

### 본회 신입직원 채용



◁ 김재서씨

본회는 10월 1일부로 홍보부에 김재서씨(상지대학교 축산학과졸)를 신입직원으로 채용하였다.

### 본회 의정부육계분회

사무실 이전

본회 의정부육계분회(분회장 김형기)가 지난 8월 28일부로 사무실을 이전하였다.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2동 481번지

전화 : (0351)879-0031

팩스 : (0351)879-0034

### 본회 논산육계분회

사무실 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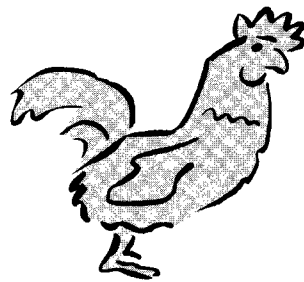
◁ 이종철 분회장

본회 논산육계분회(분회장 이종철)가 지난 1일부로 사무실을 이전하였다.

주소 : 충남 논산시 취암동 803번지

전화 : (0461)736-2131-4

팩스 : (0461)736-2135



**철저한 방역관리로  
생산성을 향상시키자.**